

3차 중앙교섭 질의응답 시간 가져

사측, 금속 산별 최저임금 산정 근거, 정년 연장, AI요구, 초기업 교섭 등 질의
질의응답 거치며 노조 요구에 대한 쟁점 등 확인돼

12일 오후 2시경 지부 2층 대강당에서 3차 중앙교섭이 열렸다. 이날 중앙교섭은 2026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섭 이후에는 지부와 노조 간담회를 가졌다.

3차 본교섭은 노사 대표 기조 발언으로 시작했다. 기조 발언을 먼저 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박근형 회장은 “3주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이야기뿐이었다. 기업의 파업문제에 관심 가진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한 사업장 파업에 모든 언론과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중요한 의제가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관심이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기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금속노조 올해 중앙교섭 의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금속사용자협의회가 치고 갈 의제인지 의문이 들지만,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발언이 이어졌다. 박근형 회장의 기조 발언에 이어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궁금점은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일정 해소되기를 바란다 “라며 ”정부 방향에 맞춰 초기업 교섭 관련 요구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해주기를 당부한다 “라고 회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사용자협의회는 ▲금속 산별최저임금 산출 근거▲초기업 교섭 확장요구▲인공지능(AI) 요구▲국민연금과 연동한 정년연장 요구▲중앙교섭 합의 사항 보충 교섭 담는 요구 등에 대해 입장과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노조도 각 질문에 대해 노조가 가진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히, 중앙교섭 합의 사항 보충 교섭 요구에 대해 금속노조가 향후 금속산별 협약을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 전망 속에서 최소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노사 대표는 서로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며 마무리했다.

3차 중앙교섭을 마치고 이어서 중앙교섭 교섭단과 지부 교섭단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교섭에 대한 궁금점과 총파업 투쟁 초기업 활동 최저임금 투쟁 신규 채용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조합 활동 방안 등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있었다.

한편, 3차 교섭 준비를 위한 사전 회의는 13시 30분경 시작했다. 사전 회의에서는 3차 교섭 진행안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교섭 일정 등 흐름에 관해서도 확인했다. 4차 중앙교섭은 19일 울산에서 진행된다. 장소는 민주노총 울산본부다.

민주노총
조합원
최저임금
글
공모전

최저임금으
로다시쓰는
나의이야기
2026

공모 기간
2026. 5. 12 ~ 5. 29.

공모 자격
민주노총 조합원 누구나

작품 형식
신문(수필, 일기, 편지글, 7행문 등)

접수 방법
이메일로 접수 (prkctu@kctu.org)

문의
02-2670-9183 / prkctu@kctu.org

공모 주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나의 생각과 현황, 실제 경험 이야기(글 나란히 방식)로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 수상작은 △총파업제와 최저임금 수급률 제고 △최저임금 통폐합제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해 다.

사상 내역
최저임금인상 1명 30만 원 상당 상품과
보충요구대장 1명 20만 원 상당 상품과
지별교섭대상 2명 10만 원 상당 상품과
합계사상대상 3명 5만 원 상당 상품과
내려방물대상 5명 3만 원 상당 상품과

민주노총

▶최저임금공모전



▲4차 지부집단교섭과 현장 순회가 비엠금속에서 진행됐다.

▼ 3차 중앙교섭이 진행중이다.





사진 : 민주노총 부산본부

15,174명의 한 목소리 ‘노동 중심 산단 만들어야’

산단 노동자의 작은 행복 ‘천 원의 아침밥’ 과 작업복 세탁소 더 확대해야
금속노조,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노동 중심 산업단지’ 4대 의제 전면화

산업단지 대다수 사업장이 30인 미만 인 조건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환경과 노동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요구로 모였다. 정책 요구는 4대 요구로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의제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보장 의제 ▲산업단지 노동자 안전 의제 ▲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요구 사항 등이다.

11일 오전 11시경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민주노총이 주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질의 결과 공개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사업 계획도 밝혔다. 회견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서명운동 결과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서명운동은 이후 산업단지 노동자 조직화, 산업통상부와 의 산업단지 노정 교섭 등 4대 정책 요구 실현을 위한 실천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김형수 부위원장은 “산재 사망사고로 현장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공장 한편에서 관리자가 내일 잔업 못하시는 분을 묻고

있었다”라며 “작업이 중단돼 대기하고 있던 노동자는 산재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무거운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 산업단지 노동자 현실을 폭로했다.

오늘 회견을 준비한 금속노조를 포함한 화학섬유노조와 민주노총은 수년 전부터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것. 실태조사를 통해 늘 확인된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 이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더 강력하게 구체적 요구를 제안하고 있는 것. 기자회견에서 산업단지 노동자 요구가 소소한 일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천원 아침이나 작업복 세탁소 등이 그렇다. 소소한 일상의 변화에 산업단지 노동자는 더 큰 성취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이후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사업과 요구 사업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에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산업단지 공동 근로복지기금 예산 지원 ▲산업단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과 작업복 세탁소 요구도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단지 공영 통근버스 도입 지원 요구도

제기됐다.

11일 기자회견에 이어 12일 부산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성민 지부장은 “금속 노동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단 세탁소 설치, 산업단지 내 무료 대중교통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바람이 정책적으로 실현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공항을 짓고 도로를 높이고, 글로벌 허브 도시도 좋지만, 시민들의 가장 낮은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사실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과 공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요구안을 공표했다.

한편, 산업단지 업체당 노동자 수는 평균 18.5명. 임금 체불이 발생한 59,211개 사업장의 91.6%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 산재 사망 노동자 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45.7%가 불법과건으로 확인되기도 한 것.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

2026

한 눈에
쏴!

금속노조 임·단협 공동요구

2 0 2 6 함 께 싸 우 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18만 공동요구

AI도입 고용과 인권 보호

- 1 노동자 고용안정과 인권 최우선
인간 중심 AI 도입·활용
- 2 노사 합동 영향 평가,
고용보장 대책
- 3 AI가 수집하는 정보 종류, 알고리즘 등 운영 정보 제공
- 4 AI 활용 인사 조치 기준 공개



기본급 인상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9,6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금속산업 최저임금

“2027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1,540원과
월급 2,608,04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 1 초기업 협약 효력 확장 제도 마련
- 2 중앙·지부집단 교섭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 3 초기업 교섭 노사단체 정책 참여 보장



비정규직 고용과 원청교섭권 보장

- 1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가입 불이익·해고 금지
- 2 실질 지배·결정 사용자는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교섭 응낙
- 3 사내하청 변경 시 고용, 단체협약 등 승계 도급계약 명시
- 4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조 활동 보장



정년연장

“조합원 정년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026 함께 싸우자
연금수급 불일치 해소!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원청교섭 공동요구

- 금속노조와의 협약 체결 및 성실 준수 이행 확약
- 간접고용 노동자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항의
단협체결권 인정
-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 계약관계
사용자와의 도급계약에도 반영
- 월 기본급 149,600원 인상. 이를 위해 도급비 인상
-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미지급 시 연대책임
- 사내하청·하도급 업체 변경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
- 노사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업종별 공동요구

자동차

- 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조선

- 정규직 신규 채용 확대
- AI 도입 고용과 인권 보호

철강

- 국내 생산 및 투자 확대
- 산업전환 정보 공유, 노동에 책임 전가 금지
-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화, 불법파견 인정 공정 정규직 전환

